

『기요쓰네(清經)』에 그려진 주인공의 집심(執心)*

김충영**

kcy33@korea.ac.kr

Contents

1. 서언
2.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를 통해 본 기요쓰네의 인물상
3. 제아미의 『슈라(修羅)』론과 『기요쓰네』
4. 남편의 비보를 접하는 기요쓰네(清經)의 아내
5. 아내 앞에서 표출되는 기요쓰네의 집심
6. 기요쓰네 구제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1. 서언

노(能) 『기요쓰네(清經)』는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를 소재로 하고 있는 슈라노(修羅能) 작품이다.

제아미(世阿彌)가 남긴 노 이론서 『사루가쿠단기(申樂談儀)』에 『清經 世子作¹⁾』이라 적혀 있어 작자는 제아미라 보아도 무방하겠다.

기요쓰네(清經)는 헤이케의 총수 기요모리(清盛)의 적자 시게모리(重盛)의 셋째 아들이니, 기요모리의 직계손자 중 한명인 셈이다. 처자에 연연하는 등으로 무인답지 못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다 끝내 나치(那智) 앞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만 고레모리(維盛)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기요쓰네 또한 아내와의 부부애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리(=橫笛)의 명수로 알려진 것으로 보아 풍류인다운 기질은 다분했던 듯하나, 무골다운 강인함은 많이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이은 패전 끝에 절망하여

* 본 연구는 2012년도 고려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表章等校注『世阿彌禪竹』<日本思想大系24>, 岩波書店, 1974

결국 부젠(豊前) 근방의 바다 야나기 포구(柳ヶ浦)에서 몸을 던져, 죽기에는 아직 너무나 아까운 2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작품 속에서 밝히고 있는 자결의 이유는, ‘거듭된 패전으로 일가의 명운이 기울대로 기울어 아내가 기다리는 교토(京都)로 돌아갈 희망은 없어 보이고, 여기저기 전전하다 하찮은 잡졸에게 붙잡혀 치욕스런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 싶어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비보를 접한 아내의 생각은 달랐다. ‘아직 주상(=安徳天皇)도 살아계시고 일가가 완전히 끝장을 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혼자 세상을 비판하여 자진해서 죽을 것까지 있었는가?’하는 의문이 아내에게는 아무래도 남았던 모양이다. 그리고는 남편의 부하였던 와키(ワキ=淡津三朗)가 들고 온 남편의 유발(遺髮)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남편이 남긴 머리카락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견디기 어려울 지경인데 그 유발까지 곁에 두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能) 『기요쓰네(清経)』에서는 그렇게 죽어간 기요쓰네의 망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가 남긴 유발을 고향의 아내에게 전하는 역을 맡은 그의 부하가 조역인 와키(ワキ)로 등장하며, 고향에서 그의 유발을 받아들고 남편에 대한 애증(愛憎)의 변을 토로하는 아내가 쓰레(ツレ)로 등장한다.

극의 전개상의 핵심은 기요쓰네의 망령과 아내 사이의 부부싸움과도 같은 갈등의 묘사에 있다. 아내는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먼저 삶을 포기해버린 남편을 원망하고, 망령으로 아내 앞에 나타난 기요쓰네는 그러한 자신을 원망하여 유발마저 돌려보낸 아내를 나무라는 내용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부부 사이의 애증과 갈등 구도에 이 작품 이해의 핵심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구도 속에서 포착되는 주인공 기요쓰네의 집심이 어떠한 양상으로 작품 속에서 그려져 있는지 분석,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를 통해 본

기요쓰네의 인물상

기요쓰네(清経)는 헤이케(平家)의 무사였으니 노 『기요쓰네(清経)』는 슈라노(修羅能)의 작품으로 분류된다. 슈라노 계통의 작품이니만치 슈라노와 관련된 제아미의 언급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제아미는 그의 이론서에서 『겐페이(源平)의 명장(名將)을 토대로 각색하는 것이라면 특히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 적혀 있는 이야기대로 지어야 할 것이다. (源平の名將の本説ならば、ことにことに平家の物語のままに書べし²⁾)』라며, 『헤이케모노가타리』에 적혀 있는 이야기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헤이케모노가타리』에 적힌 기요쓰네 관계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보이는 기요쓰네 관계의 기사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灌頂卷」의 「六道之沙汰」의 단(段)에 보이는 겐레이몬인(建礼門院)의 술회다. 친정 식구들인 平家が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목도하였던 그녀는, 시아버지인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에게 그 자초지종 얘기를 「六道之沙汰」의 단에서 토로하였는데, 헤이케 파멸의 전조로서 기요쓰네 자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10월 쯤, 기요쓰네가 “교토(京都)를 겐지(源氏)에 의해 공략당하고, 구슈(九州)에서는 고레요시(維義)에게 쫓겨나,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네. 어디로 가면 이 신세 면할까. 목숨 부지해 봐야 부질없구나.”라며, 바다로 몸을 던졌던 일이야말로 슬픈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神無月の頃ほひ、清経の中將が、“都のうちのをば源氏がためにせめおとされ、鎮西をば維義がために追ひ出さる。網にかかれる魚の如し。いづくへゆかばのがるべきかは。ながらへはつべき身にもあらず”とて、海に沈みさぶらひしぞ、心憂き事のはじめにてさぶらひし。)

기요쓰네가 시게모리(重盛)의 3남이니, 시게모리의 이복 여동생인 겐레이몬인에게 기요쓰네는 조카뻘이다. 나이 차이가 8살이었다 하니, 어릴 적부터 가까

2) 앞의 주 1)과 동.

이서 귀여워했던 조카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랬던 기요쓰네의 자결은 고모 켄레이몬인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던 모양이다. 수많은 조카 중에서도 유달리 정이 많고 섬약한 데가 있었다면 8년 연상의 고모에게는 그의 죽음이 더한층 애달프게 여겨졌을 것이 틀림없다.

그가 유달리 정이 많고 섬약한 데가 있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나,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은 아니다. 그 근거로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시게모리(重盛)와 형 고레모리(維盛)로 이어지는 성격적 내력이다.

그의 아버지 시게모리(重盛)의 성격에 관해서는 『헤이케모노가타리』의 묘사에 상세하다. 아버지 기요모리(清盛)와는 대조적으로 온후한 성품이어서 아버지에게 곤잘 간언을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특히 시시가타니(鹿ヶ谷) 사건 이후에 겪은 내적 갈등은 섬약한 그로 하여금 재기불능의 병마의 수렁에 빠뜨렸다. 그는 결국 40대 초반의 아직 젊은 나이에 아버지 기요모리의 비탄을 뒤로한 채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는데, 무골다운 강건함은 찾아볼 수 없고 대체로 섬약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시게모리의 장남인 고레모리(維盛)의 성격 또한 그와 많이 닮았던 듯하다.

외모가 수려하여 소년기에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의 50세 축하연에서 세이가이하(青海波)라는 춤을 추기도 했다. 『建礼門院右京大夫集』에서는 이때의 그의 모습을 히카루젠지(光源氏)의 외모에 비견하여 칭찬하고 있으며, 헤이케를 싫어했다는 구조카네자네(九条兼実)도 『玉葉』에서 「용모가 수려하여 참으로 경탄스럽다(容顔美麗、尤も嘆美するに足る)」라며 극찬하고 있다. 요컨대 풍류나 즐기는 귀공자 타입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러하던 그가 1180년 겐지(源氏)의 거병에 대응하기 위해 23세의 나이로 총대장에 임명되어 전장으로 향할 적에는 그림으로도 못 그릴 수려한 외모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뛰어난 외모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아니었던지, 전장에서 그는 무골과는 거리가 먼 총대장의 모습만 부각되었다. 새떼의 날갯짓 소리를 적의 기습으로 오인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혼비백산하여 패주한 후지카와(富士川) 전투는 平家 무장들의 최대의 수치였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기요모리(清盛)는 격노하여 손자 고레모리의 귀경을 금했다 한다.

나중에 겐지(源氏) 세력의 공격을 받아 다 같이 교토에서 퇴각할 적에도 고

레모리는 두고 가는 처자와의 이별이 못내 아쉬워 발길을 지체하였으며, 이치노타니(一ノ谷) 전투를 전후하여서는 진지를 몰래 빠져나가 고야산(高野山)에서 출가했다가 결국 나치(那智) 앞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고 전해진다. 대군의 생사를 책임질 총대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너무도 많은 나약해빠진 약골 귀공자의 모습이 작품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다.

노 『기요쓰네』의 주인공으로서의 기요쓰네의 인물상 조형에 즈음하여, 이상과 같은 가족 간 내림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겐페이(源平)의 명장을 토대로 각색하는 것이라면 특히 헤이케모노가타리에 적혀 있는 이야기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제아미가 그러한 가족 내림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아미는 가급적 『헤이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인물상 그대로 되살리려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아미의 「슈라(修羅)」론과 『기요쓰네』

제아미의 작품 『기요쓰네』는 슈라노(修羅能) 작품이니, 제아미가 남긴 최초의 이론서 『후시카덴(風姿花伝)』에 적힌 「슈라(修羅)」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여 주목된다.

이 또한 하나의 부류이다. 그러나 연기를 잘 하여도 재미가 없다. 고로, 그다지 상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源氏나 平家 등의 이름 있는 사람(=武將)의 이야기를 花鳥風月の 정취와 결부시켜 각색하여 그 작품의 됃됨이가 좋다면, 그것 또한 무엇보다도 재미있다. 이러한 작품은 특히 화려한 데가 있을 것이 요망된다.

(これまた一体の物なり。よくすれども、面白き所稀なり。さのみにはすまじき也。ただし、源平などの名のある人の事を、花鳥風月に作り寄せて、能よければ、何よりもまた面白し。これ、ことに花やかなる所ありたし³⁾)

슈라노(修羅能) 또한 하나의 부류인데, 이 부류는 연기를 잘 해도 오히려 재

3) 『風姿花伝』第二篇 [物学条々]의 「修羅」条.

미가 없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있다.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대 예능의 생명은 연기에 있다 하겠는데, 이 슈라노라는 부류의 경우에는 그 주인공의 연기를 실감나게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재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참으로 난감한 딜레마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탓에 슈라노 작품은 「그다지 상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다.

그러한 딜레마의 원인은 그 주인공들이 무사(武士)의 망령이라는 부류 그 자체의 성격에 있다. 주인공들이 무섭기 짝이 없는 무사의 망령인지라, 그 연기를 실감나게 잘 할수록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공포심을 안겨주게 되어 정작 중요한 재미의 요소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되도록 상연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니 극의 소재로서는 치명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단서 또한 붙어 있다. 슈라노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겐지(源氏)나 헤이케(平家) 등의 이름 있는 무장(武將)의 이야기를 화조풍월(花鳥風月)의 정취와 결부시켜 각색하여 그 작품의 됴됨이가 좋다면」이란 단서다. 즉, 겐지(源平)의 이름 있는 무장 얘기가 풍류와 결부되어 훌륭히 상연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슈라노(修羅能)의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기요쓰네의 경우 그리 유명한 명장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헤이케모노가타리』를 통해서 이름은 꽤 알려진 헤이케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이다. 더구나 그는 피리(横笛)의 명수로 유명했다. 따라서 ‘겐페이(源平)의 이름 있는 무장 얘기가 풍류와 결부된 훌륭한 사례 중 하나로서 손색이 없다. 이러한 인물을 소재로 한 것이라면, 위의 「슈라(修羅)」론에서 제아미 스스로 피력하였듯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는」작품을 지향하여 「그 작품의 됴됨이」가 좋도록 진력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작품의 됴됨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그 「됴됨이」란 것을 작품 속에 되살려진 주인공의 인물상 조형의 측면에서 분석·고찰해 보고자 한다.

4. 남편의 비보를 접하는 기요쓰네(清経)의 아내

주인공이 망령이나 신 등의 초자연적 존재인 무겐노(夢幻能) 작품들은 대개 전장과 후장으로 된 복식무겐노(複式夢幻能) 형태가 일반적이나, 『기요쓰네(清経)』의 경우 1장 구성으로 되어 있어 이색적이다. 또한 조역인 와키는 대개 승려임에 비해, 이 작품의 경우 기요쓰네의 부하였던 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그저 기요쓰네의 죽음을 알리고 그의 유발(遺髮)을 아내에게 전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어서 주인공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심지어는 구제의 길로 이끌어주기도 하는 일반적 와키에 비해서는 그 존재감이 많이 뒤처진다.

일반적인 무겐노(夢幻能) 작품에서 와키의 신분이 승려인 것은 망령의 처지인 주인공을 불교적 구제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인공의 집심으로 인한 내적 갈등 등의 내면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그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와키에게 일부 맡겨져, 그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어울리게끔 공력이 높은 고승(高僧)으로 설정된 경우도 있다. 『히가키(檜垣)』의 경우를 보면, 스스로의 높은 지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히가키(檜垣)의 망령이 좀처럼 집심을 떨치지 못하는 내적 심각성을 보이니, 그에 대응할 와키로서는 이와토야마(岩戸山)에서 3년간이나 칩거 수행을 마친 공력 높은 고승이 설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기요쓰네』의 경우는 승려도 아닌 일개 심부름꾼과도 같은 인물이 와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인공의 죄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작자에 의한 의도적 설정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작자의 설정을 염두에 두고 이하 작품 전반에 걸친 주인공의 인물상을 그의 집심(執心)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늘 그러하듯, 이 작품의 경우도 조역인 와키가 가장 먼저 무대 위에 등장하여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한다. 자신이 기요쓰네를 가까이서 모셨던 부하라는 사실과 기요쓰네의 자결 경위를 짚막하게 밝히고, 기요쓰네가 남기고 간 유품인 유발(遺髮)을 그 아내에게 전하러 가는 길이라는 얘기도 한다.

아직 기요쓰네의 아내는 기요쓰네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독수공방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와키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뿔 면목이

없는 심부름'을 왔다며 머뭇거리린다. '뿔 면목이 없다'는 말에 출가해서 중이라도 되었느냐며 많이 불안해하자, 머뭇거리던 와키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기요쓰네의 자결소식을 알린다.

그 소식에 아내는 잠시 넋을 잃는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아내는 자신을 혼자 남겨둔 채 떠나가 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낸다. 아내로서는 남편이 스스로 생을 포기한 '자결' 행위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었던 것이다. 싸우다 죽임을 당했다든가 병들어 죽었다면 도리 없는 일이지만,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어찌 스스로 생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무심함이 서러워 목 놓아 울었다.

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와키는 「이걸 보시며 마음을 달래시라(これを御覧じて御心を慰められ候へ)」며 기요쓰네가 남기고 간 유발(遺髮)을 건넨다. 와키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이 부분이 와키의 마지막 대사다. 그리고 잠시 무대 가운데쯤에 앉아 있다가 주인공 기요쓰네의 망령이 등장하기 직전에 무대 구석 쪽 작은 문(切戸口)을 통하여 퇴장하고 만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마쳤으니 퇴장한다는 뜻이 되겠다.

유발을 받아든 기요쓰네의 아내는 절규한다. 그리고 심한 비탄에 겨워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읊는다.

눈에 떨 적마다, 내 마음 미어지는 유발이기에, 견딜 수가 없으니, 되돌려 보냅니다.

(見るたびに、心づくしの髪なれば、憂さにぞ返す、もとの社に⁴⁾)

그러지 않아도 견디기 어려운데, 유발까지 곁에 있어 눈에 띄곤 하면 도저히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우니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뜻을 담은 노래다. 남편 기요쓰네의 입장에서 보면 모처럼 남긴 유발을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많이 서운할 수도 있는 조처이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으

4) 八坂本系『平家物語』에는 교토(京都)에 헤이케(平家) 일가가 모두 도망 길에 오를 시점에 기요쓰네가 아내에게 귀밑머리(鬢の髪)를 잘라 남겼으며, 이 노래도 그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延慶本『平家物語』나 『源平盛衰記』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술이 보인다.

려니 싶다.

아내는 그렇게 유발을 되돌려 보내고 나서 밤새 울다 지쳐 꿈속에서라도 남편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잠이 든다. 이리하여 이후의 전개는 아내의 꿈속이 되는 셈이며, 거기에 남편 기요쓰네의 망령이 나타나 작품은 몽환(夢幻)의 세계로 접어든다.

5. 아내 앞에서 표출되는 기요쓰네의 집심

아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기요쓰네의 망령은 “이보시오 마누라. 기요쓰네가 왔소.(いかに古人、清経こそ参りて候へ)”라고 말을 건다. 그리던 남편의 출현에 아내는 꿈속의 대면을 반기면서도, 대뜸 자신을 홀로 남겨둔 채 자결해 버린 무심함부터 따지고 든다.

설령 꿈속이라 하더라도 모습을 보이시니 고맙긴 해도, 천명이 다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생을 포기해 버린 것은 약속을 저버린 것이니 그저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よし夢なりとも御姿を、見見え給ふぞありがたき。さりながら命を待たでわれと身を、捨てさせ給ふ御事は、偽りなりける予言なれば、ただ恨めしう候。)

반가우면서도 밉기도 한 남편에 대한 애증(愛憎)의 정이 짙게 묻어나고 있다. 보고 싶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만나게 되니 미움이 앞서는 이유는, ‘천명을 기다리지 않고 자결해 버렸기 때문’이며, 그것은 약속을 저버린 것이어서 원망스럽다는 것이다. 여기서 ‘약속’이란, 이를테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언제까지나 곁에서 아껴주며 지켜주겠다’는 식의 ‘사랑의 약속’이 되겠다. 기요쓰네가 자결한 해의 나이가 21살이었으니 이들은 신혼부부나 다름없었으며, 젊디젊은 신혼부부의 ‘약속’이란 그런 류의 ‘사랑의 약속’ 말고는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요쓰네의 아내는 남편의 그러한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건만, 남편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어기고 홀로 이승을 떠나버린 것이다. 아내는 그것이 못내 약속

하여, 만나자마자 그 책망부터 해대는 것이다.

기요쓰네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사람을 원망한다면 나 또한 원망할 일이 있소. 보고 위안 삼으라고 보냈던 내 유발(遺髮)을 어찌서 당신은 그냥 되돌려 보냈던 것이오.

(さやうに人をも恨み給はば、われも恨みは有明の、見よとて送りし形見をば、何しに返させ給ふらん)

유발을 그냥 되돌려 보냈던 아내에 대한 원망이다. 홀로 두고 떠나버린 무책입함과 정표를 되돌려 보낸 무심함을 탓하는 원망이다. 원망을 서로 쏟아내는 모습이 흡사 철없는 젊은 부부의 부부싸움과도 같은 양상이다.

둘의 이러한 다툼 양상은 오랜 동안 부부의 정을 다져온 중년부부의 연륜의 깊이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준다. 오랜 세월동안 애증의 부부애를 다져온 연륜 있는 남편이라면 이 경우, 미안함이 앞서서 사과하기에 바빴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남편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철부지 남편이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니, 인생의 깊이는 고사하고 아내 앞에서 치기(稚氣)마저 드러내는 양상이다.

따지고 보면, 기요쓰네의 아내가 남편에게서 원망을 들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홀로 교토(京都)에 남겨졌었으며, 홀로 견뎌온 독수공방의 나날은 전쟁터의 남편 걱정에 단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으며,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남편의 비보에 그녀는 그저 넋 놓고 울었을 뿐이다.

이 시점의 그녀의 심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생불여사의 상태였다. 그처럼 기력이 철저히 소진된 그녀에게 전해진 남편의 유발은 위안은커녕 설상가상의 마음의 짐일 뿐이었다. 눈에 떨 적마다 마음 미어지게 하는 유발을 견딜 여력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유발을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러한 사정 설명을 남편의 망령에게 다시 한 번 더 한다. 『눈에 떨

적마다 내 마음 미어지는 유발이기에(見るたびに、心づくしの髪なれば)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노라고….

그 말을 들은 기요쓰네는 한 술 더 뜬다.

그토록 마음 담아 보냈던 머리카락을 되돌려 보내다니. 나에게 싫증났던 게 아니었다면 고이 간직해두었어야 할 유발이건만….

(さしも送りし黒髪を、飽かずは留むべき形見ぞかし)

유발을 되돌려 보낸 것을 애정이 식어서였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도무지 아내에 대한 이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내도 이 대목에서는 질렸다는 듯이 남편을 “어리석다”고 나무란다.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씀을… 위안 삼으라고 보내신 유발이지만, 볼 적마다 마음이 미어져….

(おろかと心得給へるや。慰めとての形見なれども、見れば思ひの乱れ…)

둘의 대화는 잠시 제각기의 원망만 앞세운 대립의 구도를 이룬다. 아내는 서로 원망으로 부딪히는 그런 구도가 너무 슬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아내의 눈물에 기요쓰네는 조금은 반성이 되었는지,

지난날의 자초지종 얘기를 해 주겠소. 그러니 이제 나를 향한 원망을 푸시오.
(古の事ども語つて聞かせ申すべし。今は恨みを御晴れ候へ)

라며 자초지종 설명을 통해 달래려는 어조로 급선회한다.

자초지종 설명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아내의 이해와 납득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기요쓰네의 자초지종 설명은 사뭇 진지하고 상세하다.

우선 우사하치만궁(宇佐八幡宮)에서의 신의 계시 얘기부터 꺼낸다. 『헤이케 모노가타리』 제8권의 내용에 근거한 각색이다.

교토(京都)를 떠나 서쪽으로 향한 平家 일족은 멀리 규슈(九州)까지 갔으나

거기서도 쫓기는 신세를 면하진 못했다. 불안한 떠돌이의 나날 속에서 일족은 신불에게라도 의탁하여 앞날을 빌어야겠다 싶었던지, 오이타(大分)에 있는 우사하치만궁(宇佐八幡宮)으로 찾아갔다. 말 일곱 필과 금은보화를 잔뜩 들고 가서 신불의 가호를 지극정성으로 빌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 신전의 비단 장막 안쪽으로부터 웬 신령스런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살이의 고통은 신불도 어찌 못하는데, 무얼 그리 비는가, 온갖 정성 다 바쳐서.
(世の中の、憂さには神もなきものを、何祈るらん、心づくしに)

신의 계시인 셈으로 와카 형식이다. 「고통」의 원어 「憂さ」에는 「宇佐」가 동음이의어로 걸쳐져 있어, 헤이케를 편들어 줄 신불이 이곳 「宇佐八幡宮」에는 없다는 뜻도 여기에는 함께 내포되어 있다. 즉, 더 이상 신불은 平家 편이 아니니 그리 지극정성으로 빌어야야 소용없다는 뜻이 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처지인 平家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게 하는 절망적 사형선고와도 같은 냉엄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기요쓰네의 자초지종 설명에 의하면, 그러한 신의 계시에다 설상가상으로 적들의 공격 소식이 속속 들려와 일족의 심리적 숨통을 죄어왔다는 것이다. 이쯤 해서 기요쓰네는 마음의 정리를 했다.

宇佐八幡의 계시가 거룩하게 마음에 남는데, 진리(=신의 가호)는 진실로 정직한 자의 머리에만 깃든다고 외곬으로 결론짓고, (정직하지 못하여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平家は) 어차피 이슬처럼 사라져야 할 목숨들. 그런데도 구차하게 목숨에 연연하여 부초와도 같이 배 위에 몸을 맡겨, 물결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는 한심한 신세. 대체 언제까지 이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싶어, 차라리 물에 몸을 던져 모든 걸 끝내자며 결심하여...

(八幡の、御託宣あらたに、心魂に残る理、まこと正直の、頭に宿り給ふかと、
ただ一筋に思ひとり、あぢきなや、とても消ゆべき露の身を、なほ置き顔に浮草の、波に誘はれ、舟に漂ひていつまでか、憂き目を水鳥の、沈み果てんと思ひ切り)

절망적인 내용의 신의 계시에다 기약 없이 쫓겨만 다니는 구차한 삶에 대한

회의까지 겹쳐 기요쓰네는 겨우 지탱해 왔던 일말의 희망의 끈마저 놓고 삶을 포기할 것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위 글은 오랜 물 위에서의 불안정한 생활도 심신을 지치게 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치 없는 부초와도 같은 떠돌이 삶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헤이케 일족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와도 같은 신의 계시. 이것은 섬약한 성품의 기요쓰네에게서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곳은 위의 밑줄 친 부분이다. 기요쓰네는 신의 계시 얘기를 전해 듣고 나름 골똥히 생각한 끝에 『진리(=신의 가호)는 정직한 자의 머리에만 깃든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헤이케 일족이 신에게서 버림받은 이유가 정직하지 못한 점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헤이케 일족이 겐지 세력에 항거하여 발버둥치는 것도, 신에게마저 버림받은 이상 모두 부질없는 짓이란 걸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요쓰네는 신에게만은 버림받고 싶지 않았다. 신에게만은 자신의 『정직』함을 인정받고 싶었다. 그 인정을 위한 최선의 방편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것이 『자결』의 길이었다는 것이다.

자결을 결심한 기요쓰네는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았던 모양이다. 다들 잠든 새벽녘에 몰래 뱃전으로 빠져나가, 때맞춰 휘영청 밝은 새벽달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보기도 했다. 허리춤에서 피리를 꺼내서는 청아한 소리로 불어보기도 하고, 이마요(今様, 유행가) 한 소절을 읊조려 보기도 했다. 그러고 있자니 문득 지난날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고, 인생의 덧없음에 탄식이 절로 나왔다.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자결할 자신을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광인(狂人)이라 부르겠지 싶기도 했다. 온갖 상념이 어지러이 떠올랐지만 기요쓰네의 마음을 밝혀 마지막 결행으로 이끈 것은 달빛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하든, 이 덧없는 세상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저 달은 서쪽을 향하고 있구나. 달빛이여 나도 (서방정토로) 데려가 주시오.

(人は何とも、みるめを仮の夜の空、西に傾く月を見れば、いざやわれも連れん)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란 주로 여태 운명을 같이 해 온 平家 일족 사람들이 되겠으나, 여기에는 아내도 포함된다. 자기 일족은 물론이고 아내까지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광인이라고까지 하며 지탄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 갈길 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속세의 어둠을 밝히고 있는 달빛의 지향점이 서방정토라며 자신도 함께 데려가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이 부탁과 함께 그는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아내에게 들려준 기요쓰네의 자초지종 얘기다.

눈물을 흘리며 잠자코 듣고 있던 아내는 부부 인연의 한탄스러움에 다시 한번 오열한다. 오열하는 아내에게 기요쓰네는 세상살이의 지옥 같음을 다시 한번 되뇌고, 자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수라도(修羅道) 세계의 끔찍한 양상도 설명한다.

그런 다음 기요쓰네의 어조는 급반전하여, 느닷없이 마음이 맑아졌다며 깨달음 끝의 성불을 기뻐한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이 행했던 『十念』의 공덕으로 원했던 바대로 부처의 구제의 배를 틀림없이 탈 수가 있었기에, 참으로 마음 맑은 기요쓰네는 성불이라는 불과(佛果)를 얻을 수가 있었다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네.

(まことは最期の、十念乱れぬ御法の舟に、頼みしままに疑ひもなく、げにも心は清経が、げにも心は清経が、仏果を得しこそありがたけれ)

자결하기 직전 흔들림 없이 행했던 마지막 염불이 공력을 발휘하여 원하던 바대로 구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마지막 염불이 그리 흔들림 없이 훌륭한 것이었다면 자결하자마자 바로 구제의 세계로 직행했어야지 수라도(修羅道)에는 왜 떨어졌는가 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요쓰네의 생각일 뿐, 보다 근본적인 구제의 사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 구제의 사유는 기요쓰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남편의 설명을 찬찬히 들은 후의 아내의 심적 변화의 구조이다. 그것은 문맥 속에서 읽히는데, 아내는 여전히 석연치 않아하면서도, 남편의 명복을 위해서는 납득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나름의 판단을 했던 것으

로 파악된다. 남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아내는 체념한 듯 더 이상 남편을 책망하진 않고 그저 울기만 했다고 적혀있다. 아내는 괴롭지만 남편을 이해해줘야 했으며, 그 괴롭고 슬픈 납득을 무언의 울음으로 대신하여 표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에는 남편도 미처 깨닫지 못한 구제의 구조가 읽혀진다. 아내의 이와 같은 슬픈 납득은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집심을 씻는 공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 공력 위에서 남편 기요쓰네의 망령은 비로소 힘을 얻어 구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⁵⁾

6. 기요쓰네 구제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흡사 부부싸움과도 같은 갈등 구조 끝에 행해진 남편의 자초지종 설명은 사뭇 진지하고 어두운 어조로 행해졌다. 기요쓰네 스스로도 내비쳤듯이, 그것은 아내를 달래서 아내의 이해와 납득을 얻어내기 위한 사태 설명이었기에 그 무엇보다도 진지해야 했다. 그러한 남편의 진지함이 통했던지, 자초지종 설명을 다 들은 후 아내는 슬픈 납득으로 화답했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남편을 구제의 세계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철없는 젊은 부부의 치기어린 부부싸움 같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작품은 막을 내렸다. 서로 제각기의 원망만 앞세운 대립의 구도는 부부의 위기마저 느끼게 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양상을 띠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요쓰네의 성불로 끝났으니 드라마의 전개로서도 상당히 극적인 반전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을 이 작품의 작자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여 작품을 지었던 것일까.

그 요인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꼽을 수 있는 것은 기요쓰네의 정직함이 아닐까 싶다. 신의 계시를 들은 그는 「정직(正直)」을 중히 여겨 목숨까지

5) 相良亨은 『世阿弥の宇宙』(ベリかん社, 1990) p.149에서 「아내의 슬픈 납득이 없었다면, 기요쓰네의 망령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집착하여 성불을 이루지 못한 채 남아 있었을 것이다 (妻の悲しい納得がなければ、清経の亡霊はいつまでもこの世に引きとどめられ、その成仏はない)」라고 지적하고 있다.

버리고 있다. 주인공 기요쓰네의 집심은 늘 「정직」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중세의 「정직」은 「청정(淸淨)」과 이어진다⁶⁾는 지적대로, 기요쓰네의 정직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제의 토대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나 형의 가족 내력에서도 엿보였던 그의 섬약한 이미지는 정직함을 중히 여기는 귀공자 타입의 인물상으로 이어져, 더없이 맑은 내면의 소유자로 작품 속에 조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정직함은 자신의 지난날을 설명할 적에도 진지하기 짝이 없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그의 성실함을 아내도 모를 터이 없었기에 늘 남편을 그리워하였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우긴 했지만 자결의 자초지종 설명을 진솔하게 해준 남편에 대해, 슬픈 납득을 마지막 선물처럼 눈물로 보내주었다.

이상과 같이 보면, 이 작품의 부부는 얼핏 보기에는 철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기실은 정직함과 신뢰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지극히 이상적인 부부였던 것이다. 남편의 정직함 위에 얹어진 아내의 더없는 신뢰는 주인공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의 영적 구제까지 이루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기요쓰네 구제의 의미는, 이 작품의 주제가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애의 소중함을 강조하고자 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리하여 이 작품은 부부애를 강조한 아름다운 슈라노(修羅能)가 되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슈라노(修羅能)의 딜레마를 훌륭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6) 相良亨 전계서 p.152.

참고문헌

延慶本『平家物語』

『源平盛衰記』

風姿花伝』第二篇 [物学条々]『修羅』条.

表章等校注『世阿弥禅竹』<日本思想大系24>, 岩波書店, 197.

相良亨, 『世阿弥の宇宙』, ぺりかん社, 1990.

- ❖ 투고일 : 2014.01.08
- ❖ 심사완료일 : 2014.02.08
- ❖ 게재확정일 : 2014.02.10



Abstract

『清経』に描かれている主人公の執心

金忠永

本稿は、能『清経』の主人公の執心に分析の焦点を据え、それが如何なる形で作品の中に描かれているのかを考察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清経は持ち前の正直さを発揮して自殺をし修羅道に落ちてしまったが、その妻の夫への限りない信頼の力で救いの道へ導かれ、結局は成仏を遂げている。清経自信は、自分の本当の救済の理由がわかっていない。身を投げる直前抱いた乱れぬ『十念』のせいであると彼自身は思い込んでいる。が、実のところ、その救済の理由は彼自身も気づかれぬ構造のなかにおける救済の装置にあった。その救済の装置は、妻の悲しい納得のなかに秘められてあった。夫の自殺関係の一部始終の説明を聞いた妻は、まだ納得のゆかぬところが依然として残るものの、悲しい心情を押さえて夫の境遇を理解してあげようと努めた。夫の「正直」さを信頼しての悲しい納得であったのである。しかしこれが夫の亡霊を救済の世界へ導く決定的な原因となり、急反転を迎えること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反転の構造のなかにこの作品の成功の秘訣が秘められており、この作品の良きできばえをここに求めてもよからう。

Key Words : 清経(Kiyotsune)、夫婦愛(conjugal love)、救済(relief)、悲しい納得(sorrowful accept)、反転(reversal)